

# 제18회 만해평화대상 '나눔의 집' 선정

##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실천부문 이세중 변호사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고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제정한 '2014 제18회 만해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에는 위안부 할머니 공동체인 '나눔의 집'이 선정됐으며, 만해 실천대상은 이세중 변호사가 만해문예대상에는 이란 영화감독 모호센 마흐말바프와 이집트 언론인 아시라프 달라, 윤양희 서예가가 특별상에는 손잡고(노란봉투 캠페인 동참 시민들)가 선정됐다.

올해 평화대상을 수상 단계인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들은 1992년 1월 8일부터 한 주도 쉬지 않고 집회를 열며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일본의 사죄 결의의 △법적 배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외침은 일본의 사실인정과 배상, 그리고 인류사에 있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참담한 인권유린과 평화의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평화대상 부문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세중 변호사는 평생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참여에 선구적 역할을 한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으로 만해 실천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변호사는

좌우 이념을 넘어서 인권 환경 경제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해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더불어 특별상은 '손잡고'의 노란 봉투 캠페인 동참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상용자동차와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가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안타깝게 여긴 한 시민의 발의로 4만 7천원씩 10만명의 성금을 모아 이를 해결 하자는 운동이 바로 '노란 봉투' 프로젝트

### 문예부문 모호센 감독 등 3인

### '노란봉투 참여 시민들' 특별상

### 8월 12일 만해축전서 시상식

다. 현재는 가수 이효리의 동참 등으로 기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6월 17일 현재 14억 6869만원이 모아진 상태다.

이밖에도 만해문예대상 수상자로 모호센 마흐말바프(이란 영화감독), 아시라프 달라(이집트 작가, 언론인), 윤양희(서예가, 전각가)가 각각 선정됐다. 이란의 영화감독 모호센 마흐말바프는 '순수의 순간' '칸다하르' '세스와 철학' '정원사' 등의 수작을 만들어 왔으며, 10대 때부터 팔레비 독재



2014년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 단계인 일본 위안부 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 사진은 위안부 할머니와 지지회원들이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수요집회 모습.



이세중 변호사



윤양희 서예가



모호센 마흐말바프



아시라프 달라

왕정에 항거해 반정부 운동을 벌여왔다.

아시라프 달라는 현재 이집트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자 언론인이다. 고은 시인의 시집 '만인보' 등을 아랍어로 번역해 아랍 독자들에게 소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서예가 모암(茅菴) 윤양희 선생은 지난 50년간 교육자, 서예가, 전

각각로서 영리나 시비를 떠나 선비정신으로 돌올한 예술적 성과를 이루며 후진을 양성해온 한국 서단의 중심인물이다.

상금은 총 3억 원이며, 각 부문 1억 원씩 나눠 지급된다. 시상식은 2014 만해축전 기간인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다. 정혜숙기자 bwjsh@hyunbul.com



한마음선원은 7월 10일 아프리카학교건립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써달라며 4250만원을 아름다운운동행에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사서실장 심경 스님, 아름다운운동행 사무총장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wanhoto@hyunbul.com

## 세월호 희생자·아프리카 학교 건립 지원

### 한마음선원, 10일 아름다운운동행에 4250여만원 전달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아프리카학교 건립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써달라며 4250만원을 아름다운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전달했다.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과 한 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은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운동행에 4250여 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진행한 합동 천도제와 한마음선원 전국 지원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탄자니아 학교건립과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항상 모범적으로 나눔할

동 펼쳐주시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지 혜원 스님은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내서 모은 것"이라며 "좋은 곳에 써달라"고 전했다.

아름다운운동행은 "이번 한마음선원 지원금 가운데 2천만원은 탄자니아 학교 건립에, 나머지 2250여만원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도서)도 7월 9일 아름다운운동행(이사장 자승)에 2천만원을 기탁했다. 세월호 희생자 피해 지원과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이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70일 넘게 사부대중이 모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 "화쟁의 정치 펼치겠다"

###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취임

불자 국회의원들의 실행단체인 정각회의 신임 회장으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사진)이 취임했다.



국회 정각회는 7월 8일 오전 7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강창일 하반기 회장 취임법회 열고 상생의 정치를 위한 불자 국회의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강창일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19대 후반기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서 회원님들과 함께 안으로는 '참 나'를 찾는 수행으로 지혜와 덕을 쌓고, 밖으로는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정각회는 하반기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전임 회장인 정갑윤 의원은 명예회장으로 위촉했으며, 부회장은 주호영·김영주 의원이, 간사장은 이진복 의원, 간사에는 류지영·임수경 의원, 감사에는 여상규·신경민 의원이 활동한다. 신성민 기자

## "현장 목소리 듣고 지역 포교 모델 개발"

### 조계종 포교원, 지역포교 활성화위한 순회 간담회 실시

#### 충남...13일 수덕사에서 연찬회

#### 인천...17일 나눔공동체 발대식

#### 제주...8월 22~23일 간담회 등

#### 포교역량 지표 조사 10월 발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지역 포교역량에 근거한 다양한 포교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포교원은 7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교원은 제34대 집행부 총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중앙·교구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포교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 인적자원을 결합해 포교환경에 근거한 포교전략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포교차장은 "전국 지역에는 사찰과 포교사, 신도회 등 많은 포교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구부서를 구심점으로

포교자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포교원은 인천(직할), 충남(수덕사), 제주(편암사) 등 3곳을 우선 선정해 사찰, 신도, 단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고, 간담회를 연다.

먼저 포교원은 7월 13일 수덕사에서 '충남 내포 지역의 포교 현황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찾아가는 포교연찬회를 열고, 수덕사 권역 말사 스님과 포교·신도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또한 포교원은 인천불교 활성화를 위해 인천불자조직화 사업을 계획하고 7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자비나눔공동체 발대식을 진행한다.

포교원은 "현재 자비나눔공동체는 1팀당 5명인원으로 100팀이 구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은 9월 인천 아시안게임·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인천 전법을 위한 봉사조직으로 전환 운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포교원은 제주지역 포교 특성화

전략 및 방향 설정을 위해 8월 22~23일 제주 관음사에서 간담회를 비롯한 연합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포교 인적자원간의 결합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한 포교원은 포교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전국의 포교역량 지표를 △인구 △종교 △포교로 나누어 1차 조사를 진행해왔다.

포교역량 자료조사 현황은 7월 13일 충남 수덕사에서 열리는 포교연찬회를 시작으로 인천과 제주지역 간담회에서 포교전략 창출의 근거와 지역 포교현황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포교원은 지역별 종교인구, 유형별 사찰, 법회 현황, 포교자자원 현황 등을 담은 지표조사 자료집을 오는 10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올해 3개 지역을 시작으로 2015년도 지역포교 활성화 구축 및 지속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도출된 포교모델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세월호 희생자 위한 100재 연다

### 자승 스님, 박영선 대표 예방서 밝혀... 유족 측 특별법 지지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9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불교계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100재를 봉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9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100재를 오는 7월 24일 조계사에서 봉행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이전에 통과돼 유가족들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특별법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어 폭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의를 이끌어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7월 10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예방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측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만들어 입법 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에 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측이 입법 청원한 특별법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은 10일 예방 자리에서 유가족 대표 측이 제안한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자승 스님은 유가족 측이 제안한 문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세월호 특별법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여야 합의가 안돼 이번 임시회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확실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종단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21세기 한국불교의 자긍심!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한영불교사전!

### 한국불교백과사전

###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

- 한국불교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영문으로 된 최초의 한국불교 백과사전!
- 570개의 표제어와 180여 컷의 컬러 사진을 통해 보는 한국의 불교문화!
-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설명,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길잡이!

혜원 · Mason 공저/국판양장컬러/656쪽/값 35,000원

### 한영불교대사전

### A Korean-English Dictionary of Buddhism

- 12,000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표제어!
- 표제어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상세한 설명!
- 표제어의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본의미|Basic meaning 표기!
- 주요 개념에 대한 산스크리트어 표기!

A, Charles Muller · 전록예 공저/국판 가죽양장/1808쪽/값 90,000원